

국민과 이주노동자: 동일성의 불안과 차이의 공포

최종렬*

요약 이 글은 라캉의 정신분석학 이야기를 사회학 이야기와 결합하여,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다룬다. 국민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신경증자로서, 전통과의 단절이 불완전하여 불안을 경험한다. 국민국가가 근대화를 위해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하면서도, 전통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담론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불안이 극대화될 때 특정의 대상을 모든 공포의 기표로 사용하여 이를 해소하려 한다. 근대 시대에는 빨갱이가 이러한 공포의 기표로 사용되었다. 이주의 지구화 시대에 접어들어, 국민은 이주노동자를 모든 공포의 기표로 활용하여 불안을 극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 모두 단군의 자손이라는 민족주의 담론에 의해 억압되었던 신분제가 지구적 형태를 띠고 되돌아오고 있다.

주요어 민족주의, 국민, 이주노동자, 신경증자, 불안, 공포

1. 신경증: 국민의 정신구조

‘불안’과 ‘공포’의 시대라 한다. 불안을 상품화하고, 공포를 통치화하는 일이 다반사다. 삶이 유형화된 제도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 미래를 개념적으로 선취할 수 없어 불안하다. 창조산업이 팽창하는 이유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괴기한 타자가 갑자기 출현하여 현실을 자의적 상태로 빠트려 공포스럽다. 반테러 통치술이 일상을 점철한다. 왜 이렇게 불안과 공포가 새삼 문제인가? 이에 대해 여러 접근법이 있을 터이지만, 나는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통해 다가가 보려 한다. 라캉은 정신구조를 정신병, 도착증, 신경증으로 분류하는데, 불안과 공포는 근대인의 전형인 신경증자의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이다.

* 계명대, 사회학, jrchoi@kmu.ac.kr

라캉은 ‘소외’(alienation)와 ‘분리’(separation)라는 ‘아버지의 이중적 기능’에 주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의 주체성이 구성된다고 본다. 첫째, 소외의 계기는 상징적 아버지가 아이와 엄마(작은 타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둘 사이의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양자를 분화시키는데, 그 이유는 아이가 엄마와 하나일 때 누렸던 희열(jouissance)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일차적 억압, 즉 희열에 대한 욕망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 결과 엄마가 내부에서 분화된다. 엄마와 아이로. 둘째 분리의 계기는 아이에게 왜 엄마가 주는 희열을 금지하는지 말로 정당화한다. 아버지의 금지의 ‘말’은 ‘의미,’ 즉 엄마에 대한 갈망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갖게 된다.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엄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닌 결핍된 존재이고, 그 결핍된 것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핍된 존재가 주는 희열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아버지의 금지의 말이 ‘엄마’를 하나의 의미(엄마에 대한 갈망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로 대체한다. 이것이 이차적 억압이고,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상징의 세계로 나아간다.

소외와 분리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의 이중적 기능을 ‘부정’(denial)하는 것인데, 그 양식은 각각 다르다. 정신병자는 ‘폐제’(foreclosure), 도착증자는 ‘부인’(disavowal), 신경증자는 ‘억압’(repression)이다. 정신병자는 아버지의 두 기능인 소외와 분리 모두 실패한 상태이다. 아이는 아버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로부터 희열을 얻고자 할 뿐만 아니라, 엄마가 결핍되었다는 것, 즉 엄마가 아버지를 욕망한다는 것도 부정한다. 따라서 엄마에게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지 않는다. 도착증자는 소외의 기능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지만, 분리의 기능은 실패한 경우이다. 도착증자는 아버지의 금지의 명령은 받아들이지만, 그에 대한 아버지의 설명, 즉 엄마가 결핍된 존재로서 아버지를 욕망하고 있다는 설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희열을 금지하는 일차적 억압은 성공하였지만, 결핍에 이름을 주는 이차적 억압은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엄마의 결핍을 상징화하지 못한다.

신경증자의 경우에는 소외와 분리의 기능이 모두 성공한 경우이다. 희열을 금지하는 일차적 억압과 결핍에 이름을 붙이는 이차적 억압 모두가 성공한 것이다. 신경증자는 크게 보아 강박증자와 히스테리자로 나뉜다. 강박증자는 자신을 자신의 욕망의 원인으로 놓아서 통일되고 완전한 존재로 만들으로써 엄마와의 분리를 극복한다. 히스테리자는 자신을 자신이 잃어버린 대상과의 관련 속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큰 타자(the

Other)가 잃어버린 대상으로서 구성함으로써 엄마와의 분리를 극복한다. 따라서 자신 이 큰 타자가 잃어버린 대상이 된다. 큰 타자는 나를 욕망함으로써 완전한 존재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한 도식으로 나타내 보자(Fink, 1997: 179).

	소외		분리	
정신병	아버지의 NO! 희열로서의 엄마	도착증	아버지의 이름 욕망으로서의 엄마	신경증
	일차적 억압 희열의 금지		이차적 억압 결핍에 이름을 주기	

그렇다면 불안과 공포는 이러한 주체구조와 어떤 연관을 맺는가? 프로이드는 불안이 엄마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본 반면, 라캉은 분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이 야기된다고 말한다. 라캉은 이러한 불안을 신경증자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본다. 신경증자는 이차적 억압을 통해 엄마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러한 분리가 확연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고 그럼으로써 불안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엄마의 결핍에 이름을 주는 아버지의 설명이 그다지 잘 정당화되지 못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신경증자는 강박증자와 히스테리자로 구분되지만, 불안이 극대화되어 나타날 때 공포증자로 분류된다. 히스테리와 강박증이 이미 완성된 부권적 은유(따라서 1차억압과 2차억압)를 전제한다면, 공포증은 아버지의 금지나 이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른 것을 가지고 엄마의 욕망을 중화시켜야 하는 경우이다. 공포증의 경우엔 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되기가 매우 힘든데 이는 부권적인 기능이 상대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이다(핑크, 2002: 282).

프로이드를 따라 라캉은 불안이 먼저 일어나고 공포증은 특정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불안을 공포로 바꾸는 방어형성이라고 주장한다. 라캉은 꼬마 한스(Little Hans)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자위행위가 전오이디푸스적 삼각관계(엄마-아이-상장적 남근)에서는 한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원천이었지만, 성적인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서부터는 불안을 일으키는 것으로 변환된다. 실제적 아버지가 개입하여 한스를 상징적으로 거세하여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은 일

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개입의 부재는 말(horse)이라는 상상적 대상에 대한 공포로 전환된다. 말을 통해 한스의 상징적 세계가 재구축되어, 상상계로부터 상징계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공포의 대상인 말은 기표로 작용할 수 있는 상상적 요소이다. 한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말이 때로는 아버지를, 때로는 어머니를, 여동생을, 친구를,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많은 것을 나타낸다. 공포증의 대상은 타자의 결여를 틀어막을 수 있는 다용도의 기표(signifier)인 것이다. 이를 통해 한스는 불안을 이겨낼 수 있었다(에반스, 1998: 168-169).

나는 라캉의 이러한 틀을 ‘사회학 이야기’와 연결시켜 볼 것이다. 라캉은 정신분석학을 엄밀 과학으로 구축하고자 하였지만, 나는 이야기의 하나로 보고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확장시켜 줄 ‘은유’(metaphor)로 사용할 것이다. 은유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던 현상들을 ‘유사성의 관계’로 묶음으로써 기존의 인식을 확장하여 결국 의미의 혁신을 낳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ichardson, 1990; Ricoeur, 1984). 정신분석학 이야기와 사회학 이야기를 은유로 연결시킬 때 기존의 인식이 어떻게 확장되고 새로운 의미의 혁신이 발생할 것인가? 계몽주의 전통을 따르는 사회학의 익숙한 이야기에 따르면 근대의 사회변동이 전통적인 공동체를 해체하고 원자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시장사회가 새로 출현하여 사회 전역으로 전문화되었다고 한다(최종렬, 2004; Turner, 1996: 4-5). 하지만 원자적 개인이 출현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된 ‘사회구조적 변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초월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던 인간을 그로부터 단절시켜 영원성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엄청난 ‘문화적 사건’이기도 하다. “근대 이전까지 세계종교가 인간의 삶을 안내하던 시절에는, 인간은 시간성 밖에서 존재가 연속되는 영원성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과학혁명으로 시간 밖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영원성의 추구는 절멸되었다”(최종렬, 2010a: 149).

초월적인 존재와 갑자기 단절된 현대인은 주어진 현세에서 단 한 번 생을 살다 사라져갈 무상한 존재로 전락하였다(김광기, 2011). 현대인은 구체적인 대상이 아닌 뭔가를 선형적으로 상실한 자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러한 ‘상실 자체’가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상실, 즉 초월적 존재로부터의 단절이 ‘불완전하다’는 점이 현대인을 불안하도록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이러한 불안을 해결해줄 존재로 출현한 것이 ‘국민국가’(nation-state)이다. 국민국가는 전통의 세계를 미신과 비합리성의 이름으로 결핍을 만들고, 합리적인 근대국가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합리적인

근대국가는 사실 민족주의에 의지하고 있었고, 민족주의는 전통을 창조함으로써 상상의 공동체를 구축하였다. 국민국가는 민족주의를 통해 원자적 개인을 국민으로 전화시켜, 불멸성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개인의 삶은 스러지더라도, 국민국가는 무한성장을 통해 불멸해야 한다! 국민국가는 종교 대신에 삶의 궁극적 지향을 제공하여 개체의 죽음과 관련한 의미의 문제를 국민국가의 불멸로 해결하려 했다. 이론상으로는, 천부인권! 근대의 성스러운 대상은 인간 그 자체이며, 이는 하늘이 준 권리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부인권! 국가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받은 국민만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박상섭, 2008). 대신 모든 국민국가는 예외 없이 마치 종교적 헌신과 같은 열정적인 충성을 국민에게 요구하였고,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동일한 하나의 국민문화 속에 통합시키려 하였다(Anderson, 2006). 원자적 개인은 모두 국민국가의 민족주의 기획에 따라 국민으로 전화되어야 했다. 이러한 기획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주체성의 구조는 다르게 나타난다.

나는 여기에서 아버지를 ‘국민국가’와 응축(condensation)시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개인은 국민국가의 이중적 기능인 소외와 분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주체성의 구조로 구성될 것이다. 국민국가는 아버지의 기능을 지니는 바, 미드(Mead, 1967)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특정의 타자’(particular other)로부터의 인정 추구에 머물지 않고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타자를 결핍된 존재로 명명하여 그와 동일시하고 있는 주체를 소외시켜야 한다. 이는 폭력을 동반하기 일쑤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의 타자로부터 누렸던 인정의 대체물인 일반화된 타자로부터의 인정을 제공하여 그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의 세계에서 누렸던 희열의 상응물 또는 그 보다 더 크고 더 인정받는 희열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학적으로 말해 이는 ‘헤게모니,’ 즉 도덕적 합의에 기반한 지배 기제이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기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정신구조가 결정된다.

이를 간단한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신병	도착증	신경증
이전 세계의 희열	금지되어 있지 않다	반드시 금지되어야만 한다	금지되어 있다
부정 양식	폐제	부인	억압
국민국가의 민족주의 담론	결핍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뿌리 깊이 존재한다

정신병자에게는 애초부터 민족주의 담론 자체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 아버지의 기능으로서의 국민국가가 폐제된 것이다. 반면 도착증자는 전통주의자들로서 과거에 얽매어 있으면서도 국가에게 제발 자신들을 전통으로부터 떼어내어 달라고 애원한다. 근대의 대표적인 주체성의 구조는 물론 신경증자이다. 민족주의 담론에 의해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전통 속에서 누렸던 희열의 대체물을 국민국가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2장에서 나는 신경증자를 근대의 대표적인 주체성의 구조로 간주하고 그의 기본 정서를 ‘불안’으로 논의해 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주의 지구화 시대를 통해 타자와 직면한 신경증적 국민이 어떻게 자신의 불안을 이주민이라는 특정 집단에게 초점을 맞추으로써 불안에 대한 방어인 극단적인 ‘공포,’ 즉 공황증으로 돌변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민족주의 담론에 의해 억압되었던 신분제가 지구적 형태를 띠며 되돌아온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물론 실증자료에 바탕을 둔 엄격한 역사기술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 글이 제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글은 역사를 새롭게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듦으로써 이후 실증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이념형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민족주의와 국민의 불안

이론상으로 근대의 인간은 신분집단, 혈연집단, 젠더집단, 지역집단, 종교집단 등 온갖 집단으로부터 해방된 원자적 개인이지만, 이 개인에게 인권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민국가이다. 국민(nation)이 문화공동체라면 국가(state)는 정치공동체이고, 국민국가는 1 문화공동체는 1 정치공동체와 결합하는 것을 당위로 만든다. 국민국가

는 국민에게 시민권의 형태로 인권을 보장한다(최현, 2006; 2007). 대신 한 국민국가에 소속된 시민들은 모두 하나의 문화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 예컨대, 국민국가는 정치적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하나의 조상을 둔 혈연공동체라는 상상의 공동체로 문화공동체를 구성하려 하였다. 이와 달리 애초부터 다민족·다인종으로 국민국가가 형성될 경우에는 공화주의와 같은 정치공동체의 성격을 더 강조함으로써 문화공동체들 사이의 차이를 소멸시키고자 하였다.

왜 국민국가는 이러한 임무를 떠맡았는가? 그것은 전통적인 종교가 하던 임무를 국민국가가 대신 떠안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종교적 세계관의 가장 큰 장점은 우주 안에서의 인간, 종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삶의 우연성에 대해 설명해준다는 것이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수십 개가 되는 다른 사회구성체들 안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것은 질병, 불구, 비탄, 노령, 죽음 등 감당할 수 없는 인간고통의 짐에 대해 종교가 매우 뛰어난 상상적 대응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현재의 불행이 과거로부터 연속된 것이라는 설명으로, 또는 미래로 향해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현재의 설명될 수 없는 고통을 설명하여 현세의 삶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종교가 힘을 잃으면서, 연속성에 대한 설명에 공백이 생겼고 이를 국민국가의 민족주의가 채운 것이다(Anderson, 2006).¹

앤더슨(Anderson, 2006: 6)은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라고 정의한다. 민족은 정치공동체인 국가(state)를 구성한 공동체로서, 문화적·혈연적 동질성을 가진 공동체로 상상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큰 민족도 특정의 경계 안에 살며, 그 너머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 본래 제한적인 것이다. 모든 인류를 기독교인으로만 채우고자 하는 것과 같이, 모든 민족을 단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민족주의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족은 절대주권을 가진 존재인 국민국가여서 마치 국경 안에서는 유일신처럼 절대이성을 가진 존재로 상상된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에 도전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민족이 공동체로 상상되는 이유는 전통적인 신분질서를 해체하여 모두 원자적 개인이라는 동일한 존재로서 하나의 국민이 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위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는 상상적인 것이다. 국민은 여러 층들로 층화될 수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가 서로 층화되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시민 개념이고, 시민 개념은 이미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장받으려는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노력,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노력

에서 보듯, 사회가 갈라져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계급사회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상상된 공동체로서 국민은 이를 부정한다.

이런 점에서 계몽주의를 주로 이어받은 일단의 사회학이 주장하듯 일방적인 탈성화(de-sacralization) 담론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신성이 종교공동체에서 국가공동체로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종교공동체와 국가가 인정한 성원들만 신성한 존재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존재는 속된 존재로 취급받는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이 아닌 종교인 또는 국민이 신성하였던 것이다. 세속화된 세상은 이를 개인의 자아로 대체하고자 하였으나, 민족주의는 이를 국민으로 바꿔치기 하였다. 이런 점에서 민족주의는 전통의 연속이자, 반동이라 할 수도 있겠다. 앤더슨은 민족주의의 기원을 유럽에서 찾는 기존의 설명과 달리 아메리카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정통 유럽인과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인 크리올 사이에 이미 광범하게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인쇄 자본주의의 발달로 ‘차별의식’이 광범하게 확산되어 유럽인에 대항한 크리올의 국민국가가 상상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족주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서구와 비교해서 본다면, 한국의 민족주의도 전통적인 종교가 행하던 역할이 사라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국민국가가 나서면서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시대 한국인은 원자적 개인이 아니라 작계는 한 가족 크게는 문중까지 아우르는 동족집락 공동체의 한 성원이었다(전상인, 2008: 77). 개인의 삶의 목적은 효를 실천하는 것인데, 생물학적인 부모를 넘어 상징으로 불멸하는 현조(顯祖)에게 효를 행해야 한다. 자식으로서 가장 큰 효는 입신양명하여 자신이 또 다른 현조가 될 정도로 상징으로 불멸해야 한다. 현조를 재현하려는 이러한 강렬한 욕구는 일상을 금욕적으로 조직하는 엄청난 노력을 요구한다(류석춘·최우영·왕혜숙, 2005).

그렇다면 성리학의 질서 속에서 살던 조선인들이 어떻게 국민으로 전환되었는가? 개항 이후 한말에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국민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김현숙, 2005; 신용하, 1986), 일제의 강점으로 인해 이는 완벽하게 이루어지 못했다. 사실 국민의 뿌리는 ‘민족’(nation)과 ‘국가’(state)가 일치하지 않는 일제시대 황민에 있다. 일제는 성리학적인 신분질서의 사회적 구현체인 동족집락 공동체를 해체시키고자 하였다. 전근대적 야만을 해체한다는 것이 그 정당화 논리였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성의 사회적 기획은 성리학적 우주질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수반하였다. 효를 행할 대상인 현

조가 살해당하자 그 속에서 연속성을 추구하던 삶이 갑자기 무의미해져 버린 것이다. 일제는 이를 황민교육을 통해 대체하려고 하였다. 1911년 10월 23일 일왕이 발표한 <교육칙어>는 이를 잘 보여준다.

짐이 생각컨대 황조황종(皇祖皇宗) 이 나라를 열러 평원(宏遠)한 덕을 세움이 심후(深厚)하도다. 우리 신민이 지극한 충과 효로써 억조창생(億兆蒼生)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대대손손 그 아름다움을 다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국체(國體)의 정화(精華)인바 교육의 원원 또한 여기에 있을 터이다. 그대들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며, 부부 서로 화목하고 봉우 서로 신뢰하며, 스스로 삼가 절도를 지키고 박애를 여러 사람에게 끼치며, 학문을 닦고 기능을 익힘으로써 지능을 계발하고 훌륭한 인격을 성취하며, 나아가 공익에 널리 이바지 하고 세상의 의무를 넓히며, 언제나 국헌을 무겁게 여겨 국법을 준수해야 하며, 일단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의용(義勇)을 다하며 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천지와 더불어 무궁할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대들은 짐의 충량한 신민이 될 뿐만 아니라 죽히 그대들 선조의 유풍(遺風)을 현창(顯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는 실로 우리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으로 자손인 천황과 신민이 함께 준수해야 할 것들이다. 이는 고금을 통하여 오류가 없으며, 이를 중외(中外)에 베풀더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바가 없다. 짐은 그대들 신민과 더불어 이를 항상 잊지 않고 지켜서 모두 한결같이 덕을 닦기를 바라는 바이다.

교육칙어의 핵심은 조선 성리학이 붕괴됨으로써 공백이 생긴 초월성 추구를 황민교육을 통해 대체하는 것이다.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御神)로부터 시작되는 천왕 역대의 선조를 역사의 시조로 하여 상상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죽은 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 사이의 연결과 재생의 신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종교라면, 교육칙어는 이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화이(華夷)관의 세계 속에서 문명의 지위를 누리며 살던 조선인이 야만의 지위를 지녔던 일본의 황민이 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유교문명국가에서 누리던 희열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희열은 금지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희열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금지가 희열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가 금지하자 생산된 희열은 다름 아닌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신분질서이다. 이는 되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제는 잃어버린 희열의 상응물을 제공해야만 했다. 일제는 조선이 공론과 공리에 빠졌다고 결핍의 언어로 규정하고, 근면역행이라는 노동윤리를 잃어버린 희열의 상응물로 제공한다. 1916년 1월 4일 조선총독부의 훈령을 보자.

착실 온건한 사상과 근면역행(勤勉力行)의 기풍을 양성하여 실업 취미를 장려하도록 힘써야 한다. 종래 조선에서는 정치로 인한 폐단으로 공론(空論)을 논하고 공리(空理)에 빠져 근로를 천시하고 (중략) 따라서 실업을 장려하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 급무로 하여, 당국에서도 지금 실업교육에 역점을 두는 까닭이며, 또한 보통학교 학생에게 이를 함양하게 하는 까닭이다(서기재·김순전, 2006: 6 재인용).

친일파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일제는 조선의 전통에 조선인이 부차되어 사는 것을 ‘금지한다.’ 이 금지의 합리화로서 일제는 조선의 결핍을 상징화한다. 즉 ‘조선은 문명화되지 않았다,’ ‘조선은 근대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조선은 합리성이 부족하다’ 등의 결핍의 언어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아버지의 기능은 곧 조선인에게 새로운 주인 기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공중도덕을 내면화한 근대적 주체’라는 기표이다. 이 기표를 자기의 것으로 육화하면, ‘질서’와 ‘만민의 행복’이라는 희열이 주어질 것이다(최종렬, 1999: 209-210). 이는 물론 ‘청결’과 ‘위생’을 만들어내기 위한 신체적 규율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김순전·정주미, 2007). 요약하면, 일제의 아버지에 의해 소외와 분리의 두 계기를 성공적으로 성취해야만 친일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친일파는 일제의 상징계를 욕망하는 신경증자이다. 일본과 조선의 문화적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한 최남선의 『불합문화론』이 우발적인 해프닝이 아닌 이유다.

하지만 신경증자로서 친일파는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린다. 그들은 조선의 유교문명과 완전히 단절하였다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황민이 유교문명 정도가 아니라 더 먼 시원의 질서와 연속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조선인과 일본인은 형태도 마음도 피도 살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대 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합니다. 일제는 이러한 충성맹세문을 만들어 조선인에게 외우게 하였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과거와의 연속성을 상기시킨다. 단절이 불완전하다. 이는 엄청난 불안을 야기한다. 천황이 나에게 말했다. 한데 이는 내가 그의 사도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는 나에게 무얼 원하는 거지? 일제의 상징

계에서 자신들이 일본인과 동일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는 조선인 황민들은 지속해서 묻는다. 식민지 규율권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아니 강력하면 할수록(김진균·정근식, 1997), 일상의 차별에 노출된 식민지 조선인의 불안은 더욱 강화된다. 근본 원인은 물론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국가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불안에 대한 예방책 내지는 방어책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일제의 아버지의 기능을 완전히 거부하고 조선의 전통 속에서만 사는 정신병자적인 전략이 있다. 학교를 거부하고 무속신앙 등 전통적인 세계에 사는 것이 대표적인 예일 터이지만, 사실 일제시대에는 현재의 사교육 광풍만큼이나 학교 들어가기 전쟁을 치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예외라 할 것이다(홍일표, 1997). 다음으로는 일제의 아버지에 의해 소외는 되었지만 분리까지는 나가지 않으면서, 조선의 전통의 일부를 물신화하여 그 속에서 희열을 찾으려는 도착증자적 전략이 있다. 일제의 현실적 힘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동화될 수는 없기에 이는 어느 정도 필연적인 전략이었다. 단군 민족주의(정영훈, 1994)와 저항적 민족주의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신채호는 단군을 실존인물로 기술하고 한민족이 단군의 자손으로 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추구하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혈통-문화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담론을 부단히 생산하였다. 대표적으로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장군의 영웅전을 집필함으로써, 민족의 숭고성, 초자연성을 강조하였다(윤인진, 2007: 16). 일상에서 체험되는 차별을 광범한 ‘차별의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통의 민족주의 텍스트를 생산하려 노력한 것이다.

해방 후 황민은 근대 국민국가에 의해 국민으로 전환된다.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독재시대에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은 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새마을운동’을 주창하는 박정희 정권은 과거와의 단절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족주의담론을 통해 과거를 잊고 있다. 도착증자가 만들어낸 저항적 민족주의가 박정희 버전 천황의 교육직어의 옷을 입고 이제는 무한성장을 추구하는 신경증자의 언어가 된다. 반쪽이긴 하지만 비로소 민족과 국가가 하나로 일치한다. 국민교육현장은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는 국민인 ‘우리’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연속된 존재로 규정한다. 우리는 우선 조상의 빛난 얼굴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연속되어 있으며,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와 연속된 존재이기도 하다. 과거-현재-미래가 상승적으로 연속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그날까지 줄기차게 전진해야 한다는 ‘로망스 서사’의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로망스 서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면, 현재의 삶이 미래 그 날에 비추어 유의미해진다(Jacobs, 2004).

국민은 정신구조상 신경증자로서, 이 시기 강박증자와 히스테리자라는 신경증자 고유의 성격을 충분히 드러낸다. 신경증자인 국민은 항상적으로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과거와의 단절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안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에 몰두하는 것이다. 국민교육현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새마을운동으로 현실화되었는데, 그 핵심은 근면·자조·협동이라는 노동윤리이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노동윤리라는 점을 밝혔듯, 한국의 자본주의도 국가가 제시한 근면·자조·협동을 통해 불안으로부터 도피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생산노동에 힘쓰는 남성은 자신이 아무 것도 결핍한 것이 없는 완전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강박증자인데, 그러한 자신감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통해 얻은 가족임금에 있다. 엄마와 하나 되어 누렸던 희열을 이제 아내를 소유함으로써 누리게 되었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재생산노동에 힘쓰는 여성은 히스테리자인데, 그는 자신이 남성강박증자의 결핍을 채

워주는 존재라 강변한다. 하지만 만약 그가 자신 이외의 다른 여자로부터 결핍을 보상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항상적인 불안에 시달린다.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재생산노동에 더욱 힘쓴다.²

하지만 노동하지 않는 동안에는 불안이 엄습해온다. 완전히 단절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과거가 여전히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불안이라는 것은 주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더 이상 알 수 없는 그 순간과 자신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 같은 미래 사이에 정지해 있는 지점이다(에반스, 1998: 168). 과거 속에서 누렸던 희열을 포기한 이유는 국민 모두가 미래에 공영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때문이다. 노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현재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어도 ‘우리 모두’ 잘 살게 될 그 날을 위해 참는 것이다. 여성은 엄청난 가사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가족 모두’가 잘 살 그 날을 위해 참는다. ‘우리 모두’는 물론 국민이다.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의례가 매일 삶에서 이루어진다.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대표적인 도피의례일 것이다. 국민정체성을 체험하기 위한 광범한 순례! 학교를 가도, 공장에 가도, 길을 걷다가도, 심지어 소비의 공간인 극장에 가도 맨 처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했다. 황지우(1983: 37)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이를 절묘하게 잡아낸다.

映畫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群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깎깎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깎깎대면서
갈죽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함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그리하여, 신경증자인 국민은 끊임없이 의심한다. “신경증자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의심이다. … 신경증자는 확신하지 못한다. … 신경증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그 경험에 매혹되건, 그것 때문에 불안에 빠지건 신경증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맥락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신이 나에게 말했다. 한테 이는 내가 그의 사도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는 나에게 무얼 원하는 거지?>”(핑크, 2002: 148-149). 국가는 내게 말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국민(‘동일성’)이라고. 열심히 노동해서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자고. 비록 노동에 고통스럽지만, 그 날이 오면 우리 모두 잘 사는 그 날이 와서 모두 보상받을 것이라고. 근데, 내가 정말 국민 맞나? 그렇다면 국가는 나에게 무얼 원하는 거지? 동일성의 불안!

이러한 불안이 극대화되면 공포의 정치가 작동한다. 상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국가는 공포의 다용도 기표로 ‘빨갱이’를 제공한다. ‘그 날’을 못 기다리고 파업을 일삼는 과격노동자는 국민의 동일성을 파괴하는 빨갱이다! 유신을 반대하는 정치집단은 북괴 빨갱이의 사주를 받은 간첩단이다! 국민은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불안을 방어한다. 빨갱이가 기승을 부릴수록 국민의 불안은 사라진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자신이 국민이라는 확증을 받고 불안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는 당시 민족주의가 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민족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정치공동체인 국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른 ‘빨갱이 민족’을 배제하고, 같은 정치적 이념을 지닌 정치공동체 성원만을 받아들이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구사한 것이다(김동노, 2010).

3. 이주의 지구화와 국민의 공포

근대성은 세계를 주관하는 초월적 존재와의 단절이 완벽하지 않아 생긴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행한 노동이 산출한 기계적인 공리주의적 일상이 가져오는 무의미의 문제와 연관된다. 국민국가는 국민의 무한성장이라는 궁극적 삶의 지향을 제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자신을 사물화시킬 정도로 금융노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던 근대인들은 국민국가가 제공한 무한성장 신화를 따라 삶의 의미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현재는 무의미한 소외된 삶이지만, 무한성장을 추구하다보면 마침내 그 날이 와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대동사회(희열)가 오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이러한 국민의 꿈을 근본에서 뒤흔든다. 금융주의적 노동을 통해 무한성장을 아무리 추구해도 성장은커녕 생존에 허덕거리는 모순을 국민이 느끼기 시작한 것이 결정적이다. 국민국가는 이 모든 문제를 성장의 지체에서 찾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국가 전체의 차원에서는 경제적 잉여가 넘쳐나지만 빈곤에 시달리는 하위계급은 더욱 넘치고 넘친다(최종렬, 2007; 2010a).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 동일한 시민권을 지닌 하나의 국민이라는 신화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하나의 국민이 아닌 상이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여러 시민들로 층화된 일종의 신분사회가 다시금 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대거 양산된 비정규직노동자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등, 삼등 시민으로 추락하고, 스스로 한국민을 생물학적으로 재생산시키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국민국가는 사회전체에 남아도는 잉여를 성장에만 쏟아 붓느라 이를 못 본 체하고, 대신 이주의 지구화를 이용해 해결하고자 한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질러 대거 공급된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노동과 재생산 모두를 해결하기 위한 인적 자산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국민국가의 이러한 도구적 기획과 무관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인종과 에스니시티에 터한 새로운 신분사회가 한국의 국민국가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다. 하나의 국민이 아닌 여러 소수민족집단들이 한 국가 안에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가 한국에서도 실현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주의 지구화가 국민국가 안에 수많은 문화적 이방인들을 들여놓은 것이다.

그러자 한국민은 드디어 자신이 국민국가에 의해 상징적으로 완전히 거세된 것이 맞

는지 극도로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죽도록 노동하여 10대 세계 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하였지만, 삶은 풍요롭기는커녕 극히 불안정하다.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해도 비정규직이기 일쑤여서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고, 정규직이 된다 해도 곧 명예퇴직에 내몰리는 상황, 그런데도 국민국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아버지로서 국민국가의 기능이 너무 허약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은 노동이 아닌 '무조건적 소모'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최종렬, 2007; 2010a). 무조건적 소모에서 그 동안 억압당해 왔던 희열을 본 것이다. 그러자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이 몰려온다. 희열은 신경증자가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쾌락'이기 때문이다. 국민국가가 개입하여 다시 확실하게 상징적으로 거세당하도록, 즉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해 준다면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국가는 뒷짐 지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대학등록금 반값 등 복지를 말했다가는 빨갱이 포퓰리스트로 몰리기 일쑤다. 국민국가가 잇기는 있지만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는 절대이성으로 상상되던 국민국가가 얼마나 무력한지 잘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가 아니라, 지구적 금융자본에 복무하는 국가로 비추지게 된 것이다.³ 국민국가의 아버지의 기능이 약화되자, 극도의 불안이 엄습한다.

그러자 국민은 이러한 불안을 상상적 대상인 이주민, 특히 '불법체류 무슬림'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포로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불법체류 무슬림 이주노동자라는 상상적 대상(차이)은 온갖 두려움을 나타내는 기표로 활용된다. 마치 꼬마 한스가 상상적 대상인 말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온갖 두려움을 지칭한 것처럼. 그래서 불안을 일시적 이나마 극복한 것처럼. 인터넷에 올라 있는 다음의 글을 보자.

태어날 때부터 미개한 개종자들이 세상을 이슬람화 하겠다며 테러와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와는 무관한 일이었기에 담담했겠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라 전 세계가 직면한 심각성을 인식하라 아직도 우리는 담담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늦지 않았다 수백년 외세침략에도 버티던 우리다 근데 하필 저런 개종자들한테 이 나라를 내주겠는가? 제발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다면 그들 방식대로 해주겠다 10배 아니 100배로 돌려주겠다. 다문화라는 양의 탈을 쓰고 불체자들과 이슬람버러지가 저지르는 범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 또한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⁴

다른 이주민은 어떠한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의 민족주의에 안에서/의해 ‘소외’의 계기는 겪고 있지만, 분리의 계기까지는 가지는 못하는 존재다. 아직 한국의 민족주의 안에 그에 적합한 자리가 완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한 문화(혈연)공동체의 성원으로 상상된다는 점만 빼고 북한이주민도 이와 비슷하다. 그런 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도 북한이주민은 의심의 대상은 될지언정 공포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현재 이주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소외와 분리의 두 계기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도록 기대 받지 않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달리 동화의 대상이 아니다. 외국국적을 유지한 채, 짧게는 3년 길어야 5년에서 6년 합법 거주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5~6년만으로는 자신들이 꿈꿨던 경제적 부를 획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다. 국민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 담론 안에서/의해서 소외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족주의 담론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고 자신을 표상할 말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병자의 구조를 할당 받고 있다.

그렇다면 온갖 두려움을 나타내는 기표로 활용되는 이주노동자는 국민에 의해 어떻게 상상되는가? 이는 정신병자에게서 나타나는 징후를 참조함으로써 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정신병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징후는 환각, 언어장애, 상상적 관계의 지배, 희열의 침입과 드라이브에 대한 통제의 상실, 질문의 결핍 등이다(핑크, 2002: 7장). 첫째, 이주노동자는 환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존재로 상상된다. 폐제된 아버지의 기능이 실제계의 차원으로 되돌아온 것이 환각이라면,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환각을 현실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상상된다. 내가 직접 인터뷰한 네팔 이주노동자는 나는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불러온 노동자잖아요. 한국이 필요해서 데려온 거잖아요라고 확신에 차서 말한다. 하지만 국민은 이를 철저히 비웃는다. 아래는 조선족 이주노동자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 있는 글인데, 같은 문화(혈연)공동체의 성원으로 간주되는 조선족 이주노동자에게도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다른 불법체류 무슬림 이주노동자는 두 말하면 무엇 하랴!

수천년야만노예잡족인 저질저속하등잡족 한족이 그들의 노예역사가 수치스러운 소수민족역사를 두리몽실 뭉뚱그려 중국사로 이미지 조작. 날조를 꾀하는 것처럼 ...

노예하등야만잡족 한족의 자발적 개노릇하는 중공의 변방 소수부족 조족도, 자신들의 할배가 조선의 노비종자였다가 도망나온것이 부끄러워, 일제강점기 대륙조선의 독립영웅들의 역사를 두리몽실 뭉뚱그려, 자신들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도주노비 할배의 도주사와 가족사를 중공한족처럼 이미지조작, 날조를 피하며, 자가당착에 빠지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 또한, 그러한 말도 안되는 환상을 바탕으로 수천 년 자기문화의 천년왕국 천손의 후예이고, 금세기 아시아의 맹주로 떠오르는 한국인과 같은 조상이라는 것만 내세우며(노비와 주인이 한조상?) 한국경제의 혜택만 뽐아먹고자, 토종한국인과 같은 한국인인 것처럼 자신들이 이주노동자라고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발 조족들이여~~~환상을 버려라~~~조족은 단지 남의 영토를 불법무단 침략한 침략자이고, 한국의 국법질서,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반민족 패륜범죄집단 중범죄자인 3류후진국 저질저속하등잡족 노예후손 불법체류자일 뿐이다.

둘째, 이주노동자는 국민국가가 부여하는 에고이상(ego-ideal)이 없기에 자신의 이미지를 인정받을 수 없어 자기의식이 불안정하다고 상상된다. 한국의 국민국가의 이상을 내면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지 못한다. 상징계가 상상계를 덧쓰는 데 실패한 것이다. 한 마디로 언어장애에 시달린다. 이는 '욕망하는 주체'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는 소수민족집단으로 형성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고향의 뿌리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살아가는 길이 있다. 디아스포라처럼 이주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이전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식 말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러한 소수민족 집단거주지를 범죄의 온상으로 상상한다.

실제로 국내 불체자와 외국인노동자의 절반이 중국인입니다. 두번째로 국내에서 당당히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집단이 파키, 방글의 무슬림입니다. 다문화와 이주노동자를 내세울 때 TV나 매스컴에 나올때는 불쌍한 필리핀이나 미얀마인들이 나와서 동정을 호소하면서, 아시아의 화합, 인권을 내세우지만, 정작 그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중국인들과 무슬림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건설노동자와 국내 서비스업에 와 있고 무슬림들은 중소기업현장에 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정책과 다문화 정책에서 가장 수혜자는 어처구니 없게도 중국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것은 국내인

과의 접촉이 많고 그에 따른 원한관계형성이지요. 문제는 중국인들은 집단적인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각종 브로커와 범죄의 온상이지요. 보이스피싱, 사기, 강도, 살인까지 광범위하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그들의 대한 신원조회가 거의 마비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그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주노동자는 상징계의 권위적인 인물로부터 동의를 구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상상적 타자와 적대한다. 이주노동자는 국민과 상상적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적인 국민과 관계를 맺는다. 문제는 이 상상적 타자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부정하고 질식시킨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박해받고 있다고 끊임없이 호소한다. 내가 인터뷰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의 항변을 들어보자.

이주노동자: 얼마 전에 지하철 탔는데. 네 명 정도. 시내에서 시내가면 우리나라 음식 파는 레스토랑 있어서 거기 갈려고 하는데. 막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 빼앗겼다. 당신들 당신들 나라 돌아가 막 그런 이야기하고. 욕 하고.

연구자: 그때 시간대가? 밤인가요?

이주노동자: 아니 낮이요. 일요일 낮에. 그래서 술 취한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려오는데. 근데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왜 그러냐, 사람한테 그러지 마라. 한국 분이 ... 그랬는데 ... 근데 그 뒤에 오는 한 여성분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 없다. 이 사람들 쫓아 보내야 한다. ... 그 여성분도 술 취한 사람하고 같이 막 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곡동 지나서, 죽전 네거리에서 내렸어요. 시내가야 되는데 트러블 생길까봐 싶어서 내렸는데. 근데 그 사람도 같이 내렸어요. 또 싸우려고.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죠. 조용히 밖에 나왔는데. 밖에 나와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같이 있는 친구가 성질이 좀 더러워서, 안에는 괜찮은데 밖이니까 제대로 한 번 교육시키자. 그러지 마라. 신고하면 안 된다.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 두 번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때부터 말 못 하는 거예요. ... 우리 택시타고 바로 도망왔죠. 집에 와서.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밖에 못 나왔어요. 혹시 신고했을까봐. ...

우일주일 동안 밖에도 못 나가고, 회사도 못 갔어요.

넷째, 국민이라면 마땅히 사회화 기간 동안 희열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리비도를 신체 전체로부터 성감대로 흘려보내게 된다. 리비도가 특정 성적 지대로 협소화되고, 나머지 신체는 탈에로틱화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제대로 사회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희열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것으로 상상된다. 그 결과 온 몸이 성감대가 되는 극도의 관능적 쾌락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상상된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그 자체가 리비도 덩어리인 것이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드라이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고 있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아래는 인터넷에 올라온 국민이 상상한 이주노동자의 모습이다.

따이는건 좋은데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는 부디 조심하기를. 생긴것도 아랍인이나 시커먼 서양인처럼 생겨서. 미국인이나 캐나다인으로 구라치고 다님. 여자들 조심해야할게. 이녀석들 성관계 전에는 매너가 아주 끝내줌. 이 매너를 보고 ... 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남자 좋은데? 왜 욕해요..욕하지 마셈이라고 함. 근데 그 이유는 한국 영주권 따려고 임신을 목표로 함. 소득이 1,500달러밖에 안되는 자기네 나라를 안가려고. 인생에 사활을 벌이는 작업임. ... 당연히 매너가 좋을수밖에.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잘사는 나라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은 필리핀보다도 후진국이니. ... 어느 누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겠음?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변신하는지 사례가 아주 많으니 검색해서 보면 되고. 골때리는게 애네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 다른 어린여자 꼬시는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음. 이놈들 2달 전에 여고생 강간하고 죽였음.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는 사고나 관심사에 있어 완전한 무기력한 존재로 상상된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밧지나 말지나, 찬드라의 경우>는 이를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네팔 출신 여성이주노동자인 찬드라 구룽은 어느 날 혼자 라면집에서 라면을 한 그릇 먹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 지갑이 없음을 알게 된다. 실랑이를 벌이던 가게 주인은 경찰을 부르고, 달려온 경찰은 한국말이 어눌한 찬드라를 정신병자로 오인한다. 경찰서, 수용시설, 정신병원을 6년 이상을 떠돌던 찬드라는 아무리 네팔어로 말을 해도 사고나 관심사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로 취급 받는다. 찬드라의 정체에 마침내 의심

을 품게 된 의사는 파키스탄인과 대면을 시킨 후 사정을 파악하게 된다. 찬드라는 고향 네팔로 되돌려 보내진다. 한국의 상징계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국민은 이주노동자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모든 공포의 기표로 활용하는가? 이는 우선 국민과 국가의 자연스런 연계가 이지러져 기존의 공포의 만능기표로 활용되었던 빨갱이가 더 이상 이전처럼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래 일어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국민의 대응에서 보듯, 지금까지 국민이 갖는 모든 공포의 기표로 사용되었던 ‘빨갱이’가 더 이상 잘 통하지 않는다. 국민국가가 아무리 빨갱이를 공포의 만능기표로 제공해도, 국민이 더 이상 잘 사용하지 않는다. 정치공동체를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동일한 문화공동체를 강조하는 민족적 민족주의에 의해 그 힘이 어느 정도 상쇄된 탓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김동노, 2010). 따라서 새로운 공포의 기표가 필요한데, 이 경우 문화공동체의 성원도 아니고 정치공동체의 성원도 아닌 이주노동자가 제격이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국가가 상징적 아버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통해 국민이라고 모두 같은 국민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민국가의 성장 로망스 서사가 산산조각 났다. 여전히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을 정도로 성장 로망스 서사가 한국민을 휘어잡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마지막 발악인 듯하다. 공포증은 불완전한 상징적 아버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된 전략이다. 이는 공포에 호소하는 탈정치이다. 이를테면 이민자들에 대한 공포, 범죄에 대한 공포, 성적인 타락에 대한 공포, 많은 세금을 물릴지도 모른다는, 지나치게 개입하는 국가 자체에 대한 공포, 생태적 파국에 대한 공포, 괴롭힘에 대한 공포 등이다. 정치적 올바름은 공포의 정치가 가진 자유주의적 형식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이러한 (탈)정치는 언제나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우중 혹은 다중을 조종하는 수법에 의존한다. 겁에 질린 사람들을 무섭게 몰아대는 것이다(지젝, 2011: 74).

이러한 공포의 정치는 국민을 도착증자의 윤리로 내몬다. 국민은 실재를 보았으면서도, 못 보았다고 부인한다. 실제 아버지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상적 아버지로서의 국민국가의 실재(결핍)를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물신주의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정말 모든 윤리가 … 물신주의적 부인이라는 제스처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인가? … 자신이 본 것을 망각하고자 하는 데서 물신주의적 부인이라는 제스처가 나온다. ‘나는 안다, 하지만 내가 안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알지만,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들을 완전히 떠맡기를 거부한다. 그래야만 마치 모르는 것처럼 계속 행동할 수 있으니까”(지젝, 2011: 89). 진정, 냉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걸까? 아니면, 국민국가의 실재를 상징화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길인가? 하지만 상징적 아버지 흉내만 내는 국민국가는 여전히 신경증자의 윤리를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 신경증자는 의식적 행위에만 책임을 지는 법적 의무만을 고집한다. 법치! 선진사회를 창조한다는 이름 아래 일상의 사법화가 판친다. 국민은 도착증자의 윤리에 빠져 있고, 국민국가는 신경증자의 윤리를 흉내 내는 기괴한 상황!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는 정신병자 취급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관한 한,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⁵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억압된 것이 되돌아오듯이, 폐제된 것도 귀환한다는 사실을! 그것도 외부로부터, 돌연히! 다문화주의를 뽐내던 유럽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급작스런 무슬림의 회귀에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보라!

4. 지구적 신분제, 억압된 것의 귀환!

이 논문은 원래 2011년 한국문화사회학회 봄 학술대회인 <문화적 징후로서의 불안과 공포>에서 발표되었다. 그 때 방청객 한 분이 내게 물었다. 일제가 금지해서 생산된 희열이 과연 무엇이냐고.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신분제라고 답하였다. 사농공상! 라강은 억압된 것은 귀환한다고 하였다. 민족주의 담론에 의해 억압된 신분제가 한국사회에 귀환하였다. 하지만 온전히 귀환하지 못하고, 전도된 징후로서 되돌아왔다. 상공농사! 모든 것이 상인의 사적 이익추구 원리를 따라 지구적으로 총화된 신분사회! 이 총화에서 맨 밑바닥에는 ‘이주노동자’가 있고, 맨 꼭대기에는 ‘글로벌 CEO’가 있다.

이주노동자는 ‘지구적 상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려 먹다가 국민국가 ‘밖으로’ 추방해 버리면 된다. 문화(혈연)공동체의 성원도, 정치공동체의 성원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설사 국민국가 안에 있어도,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사회적 인간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 그 위에 있는 한국노동자는 ‘국민국가적 상놈’이기 때문에, 국민국가 ‘안에서’ 일회용으로 계속 부려먹어야 한다. 스스로를 다른 한국인들과 동일한 국민이라 계속 여기고 열심히 금욕 노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으

로서 불안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할 곳이 마땅치 않다. 국민국가에 심각하게 도전할 수 있지만, 지구적 상놈이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여기게끔 만들면 이 문제는 말끔히 해결된다. 그래도 때를 쓰면, 용산참사에서 보듯 소탕해버리면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 위에는 미래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대학생이 있다. 등록금과 알바에 시달리면서도, 스펙을 쌓느라 정신이 없다. 일자리가 없으면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국제기구 등 외국으로 나가 글로벌적으로 일하라고 다그치면 된다.

이렇게 상승하다보면 맨 꼭대기에는 글로벌 CEO가 있다. 한때 재벌이라 불리던 대기업의 CEO는 워낙 장사에 뛰어나다보니 국민국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적으로 노는 것처럼 보인다. 글로벌 성공 신화가 횡행한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글로벌 성공은 억압된 신분제가 되돌아 온 덕분일지도 모른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신분제는 세습이 핵심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대기업은 물론 대형 언론사, 대형 교회, 대형 대학도 온갖 변칙적인 방식으로 세습을 한다. 이대 세습도 모자라 삼대 세습을 한다. 빠른 곳은 사대 세습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의 삼대 세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시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북한의 세습에 관해 논쟁한 것에서 보듯 ‘소위 진보’도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세습주의는 지구적 성장주의와 기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변변히 세습할 것이 없는 중산층은 기러기아빠와 기러기엄마를 해서라도 지구적 신분체계의 상층 위로 자식을 밀어 올리려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하고 있다(조은, 2007). 이러한 세습 노력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관습의 잔재가 아니다. 오히려 민족주의담론에 의해 억압된 것, 즉 가족의 친친(親親)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존존(尊尊)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삼은 유교 문명이 왜곡된 징후의 형태로 회귀한 것이다.

유교에서 가족은 친친(親親)과 존존(尊尊)을 본질로 하고, 이는 장장(長長), 남녀유별과 더불어 유교적 가족제도의 중요한 원칙이 된다. 유교에서 가족은 혈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깊고 두터운 골육의 감정이 있고, 친친의 유대가 돈독한 것은 자연과 본성의 이치이다. 또한 유교적 가족은 엄격한 규범에 의존하여 적서(嫡庶)를 구분하고, 남녀·장유(男女·長幼)를 판별하고, 가족성원의 지위를 확정하는데, 이것은 존존에서 비롯된다. 친친은 인애(仁愛)에 따르고, 존존은 존경(尊敬)에 따른다. 친친은 혈연적 거리가 아래로 가까울수록 두텁고, 존존은 위로 멀수록 무겁다. 유교 사회를

지탱하는 규범은 가족의 친척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존존으로 나아가는데서 성립된다(이영찬, 2007: 277).

민족주의는 바로 이러한 유교문명을 억압해 왔는데, 이것이 국민의 평등을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대의이다. ‘단군민족주의’의 ‘단군의 자손’ 의식은 [중략] 성원간의 평등관념을 수반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우리 민족 모두를 단군이라는 동일한 혈연적 연원으로부터 유래시킴으로써 동질성-동질성의식을 갖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계급차별이나 신분제도를 거부하는 속성을 가진다. [중략] ‘단군의 자손’ 의식은 민족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일종의 공동운명체 관념을 수반한다. 그리고 그 같은 가족국가관이나 공동운명체론은 근대성의 한 지표로서 민주주의나 평등주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정영훈, 1994: 43).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기를 거쳐, 또한 근래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국민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한 성장을 추구하여 왔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우리 모두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잘 살 날을 위해서이다. 꿈을 꿀 때는 길몽이었는데, 막상 실현되고 보니 되돌아 온 지구적 신분제라는 참혹한 악몽이다. 하지만 국민국가는 여전히 ‘747’과 ‘4대강’을 내세우며, 선진국가로의 성장을 독려하고 있다. 웃긴 것은, 또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지지하는 국민이다. 이를 볼 때, 단군민족주의가 뒤흔들리고 있기는 한데 아직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국가 프레임이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을 말하면, ‘소위 보수’는 여전히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빨간색 입히기에 바쁘다. 유럽좌파의 재분배의 정치학을 흉내 내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보수라면, 국민을 국민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 말이다. 왜 그렇게 안 할까?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복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수가 되돌아 온 신분제를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열렬히! 귀환한 지구적 신분제 아래에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환영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런 점에서 보수는 민족주의담론을 방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화두가 글로벌리제이션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족’ 고대가 ‘글로벌’ 고대로 전환된 저 상징적 사건을 보라! 반면 ‘소위 진보’는 여전히 민족주의 신화를 물고 늘어진다. 우리 모두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국민국가의 약속을 지키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는 물론 국민이 될 가능성이 전무한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가 모두 한 목소리로 주창하는 다문화주의가 국민을 재생산하는 데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사용하도록 강제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를 가장 밑바닥으로 하는 지구적 신분제가 더욱 확산되고 고착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역, 빈곤, 에스니시티 삼박자가 함께 가는 그 날이 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서구에서 횡행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떠오르는 건 과연 내가 과민한 탓인가?

주

- 1 이는 물론 근대세계에 들어 종교가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적 차원'에서 볼 때, 비록 그 힘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종교는 여전히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방적인 세속화 테제는 분명 경험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하지만 '분석적 차원'에서 볼 때, 종교의 기능은 국민국가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근대 이후 특정 종교의 성원이 아니어도 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만약 무국적자가 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근대이후 국민국가는 존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종교의 기능을 대체했다고 할 수 있다.
- 2 한 논평자가 성별 노동분업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전형화하였다고 비판하였는데, 경험적 차원에서는 타당하다. 하지만 나는 '분석적 실재'(analytic reality)를 말한 것이지 '경험적 실재'(empirical reality)를 논한 것은 아니다. 분석적 실재와 경험적 실재는 혼동되면 안 된다. 이는 마치 분석적 실재인 자동차 도면을 보고 왜 실제 자동차처럼 움직이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것과 같다.
- 3 한 논평자는 이것을 지구화가 국민국가를 약화시켰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물론 이 글은 그러한 단순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잘 알다시피,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역사적 관계는 이보다 훨씬 복잡적이고 역동적이다(cf. 고지현, 2010). 그럼에도 지금의 지구화가 전지전능한 아버지로서의 국민국가에 대한 근대의 상상력을 잠식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4 이후 인터넷에서 인용되는 모든 글은 '스타일의 생경함과 조약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원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 5 그렇다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주의가 '참말'이라는 것은 아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주의정책을 평가한 글로는 최종렬(2010b)을 볼 것.

2011년 6월 6일 접수, 2011년 6월 17일 수정, 2011년 6월 20일 채택

참고문헌

- 고지현, 2010, 지구화와 국민(민족)국가: 경계의 문제, 사회와철학, 19, 1-34.
- 김광기, 2011, 근대성, 현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방인으로서의 현대인, 사회이론, 39, 275-300.
- 김동노, 2010, 한국의 국가 통치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 현상과인식, 35(3), 203-224.
- 김순전·정주미, 2007, 조선총독부 편찬 『보통학교수신서』에 나타난 '신체적 규율,' 한국일본어문학회, 33, 349-367.
- 김진균·정근식 편저, 1997,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 김현숙, 2005, 한말 '민족'의 탄생과 민족주의 담론의 창출: 민족주의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5(1), 117-140.
- 류석춘·최우영·왕혜숙, 2005, 유교윤리와 한국 자본주의정신, 한국사회학, 39(6), 52-86.
- 박보영, 2010, 신빈곤을 통해 본 양극화시대의 빈곤문제, 노동연구, 19, 5-45.
- 박상섭, 2008, 국가·주권, 소화.
- 서기재·김순전, 2006, 한국 근(현)대의 <수신교과서>와 근대화의 열망, 한국일본어문학회, 31, 1-20.
- 신용하, 1986, 1894년의 사회신분제의 폐지, 규장각, 9, 49-84.
- 에반스·딜런, 1998, 라캉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 윤인진, 2007,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와 대안적 민족주의의 모색, 한국사회, 8(1), 5-30.
- 이영찬, 2007, 유교의 사회제도 사상: 가족, 국가, 신분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4, 271-317.
- 전상인, 2008, 조선시대의 사회자본: 양반의 연대, 연계, 연출, 류석춘·전상인·장미혜·정병은·최우영·최종렬 공저, 한국의 사회자본: 역사와 현실, 백산출판사, 75-104.
- 정영훈, 1994,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민족주의'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8(2), 2033-2055.
- 조은, 2007,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가족: 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국사회학회 특별심포지엄.
- 지젝·슬라보예, 2011, 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에 대한 6가지 뼈뚫은 성찰,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옮김, 난장이.
- 핑크, 브루스, 2002, 라캉과 정신의학: 라캉 이론과 임상 분석, 맹정현 옮김, 민음사.
- 최종렬, 1999, 타자들: 근대 서구 주체성 개념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탐구, 백의.
- 최종렬, 2004, 계몽주의, 대항계몽주의, 반계몽주의, 사회와이론, 5(2), 123-181.
- 최종렬, 2007, 무조건적 소모의 사회: '바다이야기'를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31, 167-216.
- 최종렬, 2010a, 무조건적 소모의 사회 2: 가부장적 핵가족의 내파와 사회의 에로티화, 문화와사회, 8, 128-173.
- 최종렬, 2010b,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 사회이론, 37, 229-268.
- 최현, 2006, 한국 시티즌십: 1987년 이후 시민권 제도의 변화와 시민의식, 민주주의와 인권, 6(1), 171-202.
- 최현, 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147-173.
- 홍일표, 1997, 주체형성의 장의 변화: 가족에서 학교로,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277-313.

황지우, 1983,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문학과 지성사.

Anderson, B.,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London, Verso.

Fink, B., 1997, *A Clinical Introduction to Lacanian Psychoanalysis: Theory and Techniqu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Jacobs, R., 2004, Narrative, Civil Society and Public Culture, in Andrews, Molly Shelly Day Aclater, Corunne Squire, and Amal Treacher(eds.) *The Uses of Narrative: Explorations in Sociology, Psychology, and Cultural Studie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8-35.

Mead, G., 1967,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chardson, L., 1990, "Narrative and Sociology,"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19(1), 116-135.

Ricoeur, P., 1984, *Time and Narrative Volume 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urner, B.S., 1996, Introduction, in Bryan S. Turner (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Theory*, London, Blackwell, 1-19.

The Nation and Migrant Workers: Anxiety of Identity and Fear of Difference

Jongryul Choi*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anxiety and fear of the nation with the help of a combination of Lacan's psychoanalysis and sociology. Psychoanalytically, the nation is the neurotic suffering from anxiety due to the incomplete separation from past traditions because the nation-state utilizes the discourse of nationalism emphasizing the continuity with the tradition while demanding the nation to separate from the past. When anxiety goes to the extreme, the nation tries to solve it by using a certain object as a signifier of all kinds of fear. In the era of modernization, partisan serves as this kind of signifier. Entering the era of globalization of migration, the nation is trying to overcome extreme anxiety by using migrant workers as a signifier of fear. At present, the globalized version of estate system, which has been so far repressed by the discourse of Dangun nationalism, is returning to Korea.

Keywords nationalism, nation, migrant worker, neurotic, anxiety, fear

* Kei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jrchoi@kmu.ac.kr